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

국회의원 99.3%(297명) 서명 선플정치선언문 동판, 문희상 국회의장 전달식

(제)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국회의원 선플정치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두, 강석호, 이찬열, 유성엽, 윤소하)와 공동으로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 및 '선플국회의원 서명동판 국회의원장 전달식'을 11월 7일(수) 오후 5시 40분,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시상식에 이어 20대 국회의원들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말과 글, 태도와 행동으로 정치권 동료들과 함께 온 국민이 바라는 국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한 국회의원 297명(99.3%)의 명단이 새겨진 동판을 여야 선플정치위원회 공동대표인 민병두, 강석호 국회의원장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선플국회의원 서명 동판 국회의원장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20대 국회의원들의 선플서명 동판을 전달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따뜻한 언어는 치유와 행복을 주지만 차가운 언어는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다"며, "품격있는 국회를 통해 선플운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6회 짝을 맞이한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교 및 대학생 297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학생 대표들이 국회의원록시스템 (lkms.assembly.go.kr/record)에 수록된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 분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2018년 8월부터 2개월간 분석하여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선플 국회의원 26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11월 7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을 가졌다. (세번째 줄 왼쪽부터 송희경 국회의원,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두 국회의원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강석호 국회의원교동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이진복 국회의원, 네번째 줄 왼쪽 두번째부터 심기준 국회의원, 박경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대상에는 문희상 (무소속, 경기 의정부시 갑), 최운열 (민주, 비례), 이명수 (한국, 충남 아산시갑), 박선숙 (바른미래, 비례) 국회의원이 선정되었고, 선플상(가나다 순)에는 강석호 (한국,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을진군), 경대수 (한국, 충북 증평군진천군을성군), 권미혁 (민주, 비례), 권은희 (바른미래, 광주 광산구을), 김영주 (민주, 서울 영등포구갑), 김종대 (정의당 비례), 박경미 (민주, 비례), 박순자 (한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박완수 (한국, 경남 창원시의창구), 송인석 (한국, 경북 김천시), 송희경 (한국, 비례), 신유현 (바른미래, 비례), 심기준 (민주, 비례), 안규백 (민주, 서울 동대문구갑), 위성곤 (민주, 제주 서귀포시), 유재중 (한국, 부산 수영구), 윤영일 (광화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진복 (한국, 부산 동래구), 이학영 (민주, 경기 군포시을), 전현희 (민주, 서울 강남구

을), 정인화 (평화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정춘숙 (민주, 비례) 국회의원이 선정되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선플정치위원회 민병두 공동위원장은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생활화하면 사회에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고, 천문학적인 사회갈등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고, 선플상을 수상한 강석호 공동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선정한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한양대학교 특훈교수는 "전국의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아름다운 언어를 실천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정했다. 일년에 하루 만이라도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달지 말고 이웃에게 좋은 언어를 실천하는 '선플

의 날'이 제정 된다면 청소년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막대한 갈등비용을 줄이고 사회에 긍정 에너지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심재권, 신상진, 유성엽 의원 등 47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선플의 날' 제정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17년 2월 10일 발의하여 현



11월 7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20대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 서명 동판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국회의원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강석호 국회의원교동위원장,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인터넷상의 '악플'과 '헤이트스피치(혐오표현)' 추방활동을 통해 인터넷평화운동을 펼쳐온 선플운동본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의 후원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를 통해 '생명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공정에

너지 전파'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에는 69만 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700만 개를 넘어섰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297명(99.3%)이 '국회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하였으며, 미국 국회의원 및 미국 주 하원 의원, 일본 국회의원 등 외국의 정치인들도 선플인터넷평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용태 기자

'악플·혐오표현 추방 시민연대' 출범

"악플과 혐오표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시민들이 앞장서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 위해 나서



12월 15일(토), 명보아트홀에서 '악플·혐오표현추방시민연대 출범선언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희길 선플경제인회 공동대표, 라울 헤르네데즈 주한필리핀대사, 마리아이나 헤르네데즈 주한필리핀대사 부인, 신상진 국회의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민병철 선플재단이사장, 민경욱 국회의원, 박경미 국회의원, 윤정현 생명존중시민회의 사무총장



12월 15일(토), 명보아트홀에서 '악플·혐오표현추방시민연대 출범선언식'이 열렸다. 첫번째줄 왼쪽 세번째 부터 박경미 국회의원, 윤정현 생명존중시민회의 사무총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민경욱 국회의원,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신상진 국회의원, 라울 헤르네데즈 주한필리핀대사

'악플·혐오표현추방시민연대'는 윤오프라이싱의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을 위해 7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12월 15일(토) 오후2시, 명보아트홀 6층에서 '악플·혐오표현추방시민연대 출범선언식'을 개최했다.

'악플·혐오표현추방시민연대'는 선플

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환경운동연합,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흥사단, 한국생명운동대 등 7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악플과 혐오표현(헤이트스피치) 추방을 통해 차별과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12월 15일(토), 명보아트홀에서 열린 '악플·혐오표현추방시민연대 출범선언식'에서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응원과 화합의 긍정에너지 확산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의 연합이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혐오표현은 2000년 초반 부터 재외동포들의 피해 사례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하는 혐오표현이 난무하면서 사회갈등과 증오범죄를 키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민병철 공동대표(선플운동본부 이사장)는 "혐오표현과 악플은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며 증오범죄의 지양분이 되어 공존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시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권태선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악플과 혐오표현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극단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악플과 혐오표현을 추방하여 차별과 증오에 바탕한 우리 사회를 연대와 사랑에 바탕한 더불어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생명에
사랑을
더한다



사이버 산타를 아시나요?

수필 대상 / 모현초등학교 백서정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사이버 산타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그냥 산타가 아닌, 사이버 산타가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고사리꽃빛이라는 선품 블로그를 운영 중이고 선품을 사랑하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제 블로그에 선품&악플 관련기사와 제가 선품달기운동본부에 단 선품을 포스팅하며 선품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품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6학년이 되어 담임 선생님이신 김철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안은 선품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선품운동본부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선품운동으로 활약 중인 김철래 선생님의 반이 되어 처음으로 선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품을 어떻게 다는지도 몰라 막막했지만 선품 캠페인에 참여하고 선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 선품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의 권유로 선품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블로그를 해본 적이 없어 처음 글을 포

스팅할 때는 얼마나 떨리고 걱정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의 조언과 미리 선품 블로그를 운영 중인 선배님의 도움으로 글을 쓰는 것도 능숙해지고 좋은 이웃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담임선생님이신 김철래 선생님과 작년에 선품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선배님 덕분이었습니다. 중간에 블로그가 다른 주제로 새어나갈 뻔도 하였지만 선배님의 블로그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어, 요즘은 많은 선품 블로그 중에서 고사리꽃빛이라는 하나의 블로그로 활약 중입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저는 [악플 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도 악플 투성이인가요?]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성공회대 김찬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와 일본, 네덜란드의 악플과 선품 비율에 대해 쓴 책 내용을 보니 악플이 선품보다 4배 더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선품이 악플보다 4배 더 많고, 네덜란드는 선품이 9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악플이 많은 만큼 신고 건수도 많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커뮤니티에는 신고된 악플이 전체의 0.1%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한, 쓰러진 할머니를 구한 여고생에게는 “얼굴이 왜 저래요?”라는 댓글이, 그리고 추위에 쓰러진 할머니에게 패딩을 벗어줬던 중학생에게는 “이 새X 방송 타려고 일부러 그랬구먼”, “패딩이 싸구려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는 것이죠. 저는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따라오는 악성댓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비난받는 인터넷 세상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저는 이러한 악플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이 기사의 URL과 함께 “선품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내용을 제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는 “악성댓글 달거나, 허위사실 퍼뜨리는 사람들은 다 벌 받아야 해요..”, “우리나라가 악플이 많기는 해

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 블로그에 와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제가 이 기사를 공유한 이유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의 밑에 달린 댓글에서 심한 내용의 악플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리고 선품운동하시는 분들의 힘으로 이 많은 악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악플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플로 고통 받은 사람들이 선품으로 인해 삶이 더 여유롭고 행복해졌다는 기사들을 접하고, 열심히 선품운동을 하고 있는 선배님과 많은 분들의 블로그, 또는 노력을 보며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선품로 하나 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스터만화부문 : 대상(만화)
/ 휘경여자고등학교 이지아〉

설마 당신도 두 가지의 얼굴입니까?

수필 최우수상 / 인천보건고등학교 김다빈

요즘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들 모두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척 웃으면서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는 사람들 중에 사회가 아닌 사이버 세상에서 까지 인정받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사회에서는 누구나 인정해 주지만 그들의 사이버 세상에서의 활동은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선품누리단 활동을 하면서 본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댓글, 마녀사냥처럼 개인정보 유출로 일상생활 자체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나 인정받던 옆집 아저씨가 알고 보니 일명 ‘악플러’였다면 거기에 대한 배신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 사이에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니 너무 슬펐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댓글로 누군가의 글을 비방하는 댓글을 쓰거나 그 비방하는 댓글에 호응한 적이나 그런 글을 보

고도 나랑은 관심 없는 척 넘어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간 일, 누구에게는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면서 미안한 마음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글쓴이라면 그런 글의 비방하는 글 중에 자신의 글을 인정해 주는 댓글이 있다면 글쓴이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사이버 세상에서는 안보이니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라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과연 사회에서도 자신의 인터넷 생활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

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 비방하는 글을 보는 사람이 남이 아닌 가족이라면 과연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은 사람은 영원한 흉터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수필을 읽는 당신도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포스터만화부문 : 최우수상(포스터)
/ 덕현중학교 송운주〉



〈블로그부문 대상 : 대부중학교 최우성〉



〈블로그부문 최우수상 : 모현중학교 태유나〉



〈사진부문 대상 : 한광중학교 배미현〉



〈사진부문 최우수상 : 이호중학교 강근호〉



〈UCC부문(대상) : 오산고등학교 유준재, 소민수, 김연주, 장정수, 김해솔, 김연희, 윤관옥 / 생명존중 UCC 대상 <https://youtu.be/wL3z90g53QA>〉



〈표어부문 대상 : 대구대덕초등학교 박준우(교사)〉



〈UCC부문(최우수상) : 모현초등학교 김호정, 박준형 / 우리동네 UCC 최우수상 <https://youtu.be/Jxi4QS37Dr4>〉



〈표어부문 최우수상 : 인천보건고등학교 유경숙(교사)〉

논문 | 대학생의 SNS선플달기 경험과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 활 적응과의 관계

Byoung-chul Min, Kyoung-Sook Oh

Founder & Chairman of Sunfull Foundation,
15F, Yoochang Bldg, 242, Teheran-ro, Gangnam-gu, Seoul 06221, South Korea
yi9324@naver.com

Abstract. 본 연구는 SNS 선플 달기 경험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 활 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선플달기를 위한 노력과 선플달기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수록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둘째, 선플달기 경험 정도가 많을수록 대학생 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플달기 경험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대학생 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Keywords: 선플운동, SNS(Social Network Service), 대학생, 자아탄력성, 대학생 활 적응

1. 서론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의 사용은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인맥 확장, 사회적 관계망 생성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대학생들에게 흥미를 끌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SNS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를 넓혀주고, 취업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주고 있다. 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하여 타인 비방, 욕설 등의 언어폭력과 대인 기피증, 자살권 침해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또한 관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인터넷 악성댓글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우울증, 대인 기피증, 자살 등의 원인이 되어 대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인성함양과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가를 활용한 여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들에게 과업 및 일시적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진로설정 등에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대학생 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우지훈·박현권·이혁기, 2014). 이외에도 학교생활의 적응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부정적인 생활사건이나 위협한 환경 등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 안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덜 받거나 거의 받지 않으며, 변화나 역경에 대처함으로써 역경, 충격으로부터 빨리 회복하는 힘, 민동일, 2007)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대학의 동아리는 봉사 동아리, 문화예술 동아리, 학술교육 동아리 등의 여러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SNS 선플운동을 전개하는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리더십 생활기술 함양(민병철, 2018) 및 학생 개인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을 높여(장병복·오경숙·윤상용·공원기(2017) 학교생활적응력(민병철·오경숙, 2018)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선플 운동은 인터넷에서 악플을 추방하는 인터넷 평화 운동으로 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활동이 현재 시대 청소년의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에 일맞은 새로운 개념의 봉사활동으로 부각되며 대학생은 물론 지역단체까지 활성화 되고 있는 운동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선플 달기 경험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선플활동에 참여경험의 중요성을 제고하며,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바른 인터넷 댓글 문화 참여 촉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도에 위치한 K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146명(1학년: 64명, 2학년: 82명)이다.

2.2 연구도구

1) SNS선플달기 경험

대학생의 인터넷 선플 달기에 대한 경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플 달기운동본부(2011)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작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댓글과 선플의 경험, 선플 달기의 노력, 선플효과 및 교육 정도를 포함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선플'은 특정이슈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거나 긍정, 희망, 배려가 있는 격려와 사람의 댓글을 말하며, 선플 달기란 인터넷에서 특정 이슈에 대하여 악플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사랑과 격려의 댓글 즉 '선플'을 달아주는 것을 말한다(선플 달기 운동본부).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은옥(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 하위요인, 총 16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자아탄력성의 전체적인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34이었다.

3) 대학생 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최지현(2008)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검사도구의 전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α .851이었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K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총 16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151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질문지 5부를 제외한 146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되었다. 회수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계수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1) 대학생의 SNS 선플달기 경험과 자아탄력성, 대학생 활 적응과의 관계

〈표 1〉 대학생의 SNS선플달기 경험과 자아탄력성, 대학생 활 적응 관계

(N=146)

	댓글경험정도	선플경험정도	선플 달기 위한 노력	선플달기교육필요성 인식
긍정적 미래지향	.143	.063	.245**	.272***
흥미와관심	.224**	.213**	.360***	.286***
자아탄력성전체	.149	.153	.296***	.268***
정서적적응	.198*	.132	.153	.020
사회적적응	.081	.031	.194*	.244**
신체적적응	.184*	.254**	.126	.007
대학애착	.023	.130	.055	.292***
대학생활적응 전체	.098	.163*	.008	.153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선플달기를 위한 노력과 선플달기 교육의 필요성은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선플달기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할수록($r=.296$, $p<.001$), 선플달기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r=.268$, $p<.001$)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중 흥미와 관심에서는 댓글경험정도, 선플경험정도, 선플을 달기위한노력, 선플달기 교육 필요성 인식 등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긍정적 미래지향은 선플달기위한 노력, 선플달기 교육 필요성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선플달기 경험 정도와 대학생 활 적응 전체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163$, $p<.05$). 즉, 선플달기를 많이 할수록 대학생 활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 활 적응 하위변인에서는 댓글경험은 정서적 적응과 신체적 적응과 정적 상관을, 선플경험정도는 신체적 적응과 정적상관을, 선플을 달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 적응과 정적 상관을, 선플달기 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사회적 적응과 대학애착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SNS 선플 달기 경험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플을 달기위해서 노력을 많이할수록, 선플달기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플을 달아본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 활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플달기 경험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대학생 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References

- 민병철·윤상용·박근일·오경숙(2018). 선플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적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2).
- 민동일(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철·오경숙(2018). 청소년의 선플봉사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2).
- 선플달기운동본부. www.sunfull.or.kr
- 우지훈·박현권·이혁기(2014). 대학 스포츠동아리 참여재미, 지각된 친구관계 대학생 활 만족 간의 가설적 인과모형.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1), 581-593
- 장병복·오경숙·윤상용·공원기(2017).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8(2), 603-605.
- 정은옥(2006). 심리적 탄력성척도의 타당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2008). 정서적응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업과 개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스카우트

Business Area

On-line
취업 포털 서비스

헤드헌팅 &
채용 대행

HR 컨설팅

근로자파견·
업무위탁

경력관리
서비스

스카우트는 IT solution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과 인재 비즈니스 경험 노하우를 통하여,
모든 HR분야의 서비스가 통합되어 시너지효과를 갖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1 삼봉빌딩 3~5층, 8층
www.scout.co.kr | Tel : (02) 3482-3366 | Fax : (02) 555-6221 | Mail : cs@scout.co.kr

일용직 플랫폼의 시작

베테랑

직업소개소와 근로자를 쉽고 빠르게 연결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간편하게 관리하는 업체, 현장, 스케줄 정보
·인력이 필요할 때 '긴급요청' 서비스
·등록된 현장에 순쉬운 인력배치
·번거로운 출근 확인도 알아서 척척!
·지역, 직종, 경력별로 '인재검색' 서비스



·자동으로 받는 일자리 알림!
·공치는 날 없는 베테랑 일자리 찾기
·한눈에 보는 내 일정!
·간편한 출근 확인과 길 찾기 기능까지!
·모든 서비스가 무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1 8층 (주)플랫폼머스
www.veteranscout.co.kr | Tel : (02) 2188-6784 | Fax : (02) 555-6221 | Mail : cs@platformers.co.kr

올해 선플운동본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평화상(http://internetpeaceprize.org)'을 제정하여,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추방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헤이트스피치를 용서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와 인터넷 윤리 전도사 '오기소 켄'씨가 공동 수상하여, KBS, SBS, 조선일보, 연합뉴스 TV 등 30여개 언론에 보도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또한, 지난 12월 16일에는 77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을 가졌으며, 4월 13 한양대학교(대학 최초 자원봉사활동 학점 인정)에서 선플지원봉사 특강과 한해 선플 활동을 마무리하는 선플활동 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선플운동본부에서는 한 해 동안 선플운동에 보내주신 사람과 관심에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해 선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영국 윌리엄 왕자 안티 불링 캠페인(anti-bullying campaign) 등 해외활동 활발



선플운동본부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선플운동과 같은 취지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단체와 개인을 찾아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영국 윌리엄 왕자의 안티 불링 캠페인(anti-bullying campaign)을 응원하는 선플달기(http://princewilliam.sunfull.or.kr)를 시작했다.

영국 윌리엄 왕자는 어린 소년이 온라인 악플로 인한 충격으로 자살까지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7년부터 인터넷 상의 악플을 추방하기 위한 사이버 폭력 반대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7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일본 에히메현 시민지구회 회원과 선플운동본부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플운동 진단회를 갖고 선플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 UCC 공모전 개최



선플운동본부에서는 롯데홈쇼핑과 함께 차별과 악플, 혐오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을 배려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 UCC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 차별과 혐오표현 추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을 주제로 일반&대학부(대상: 장관급상 및 상금 500만원)와 청소년부(대상: 장관급상 및 상금 300만원)로 나누어 총상금(1천 6백만원)을 시상한다.

오는 1월 20일(일)까지 UCC 공모전 홈페이지(http://emotion.sunfull.or.kr)를 통해 일반부&대학부 / 청소년부로 나누어 접수하면 되며,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일반 누구나 가능하다.

● 선플운동본부 주도 '악플·혐오표현 추방 시민연대' 출범

온오프라인상의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을 위해 77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12월 15일(토) 오후2시, 명보아트홀 6층에서 77개 시민단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플·혐오표현추방시민연대 출범선언식'을 갖고,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며 증오범죄의 자양분이 되어 공존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혐오표현과 악플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악플·혐오표현추방시민연대'는 선플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환경운동연합, 대한변호사협회, 한국

[2018 선플 10대 뉴스]



여성단체협의회, 흥사단, 한국생명운동연대 등 77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악플과 혐오표현(헤이트스피치) 추방을 통해 차별과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응원과 화합의 긍정에너지 확산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의 연합이다.

● 제1회 선플인터넷평화상 시상식 및 노벨평화상 수상자 초청 강연

지난 11년 동안 악플과 헤이트스피치 추방, 인터넷상의 평화운동을 펼쳐온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가 제1회 인터넷평화상(www.internetpeaceprize.org) 수상자로 일본 내 협한사위에 맞서온 시민단체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대표 세키 다 히로오, 90세)'와 인터넷윤리운동가 '오기소 켄(45세)'을 선정, 시상했다.



인터넷평화상 상장과 메달,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시상식은 선플재단, 한양대학교,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공동주최, 취업포털 '스카우트' 후원으로 10월 11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이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초청강연회가 진행됐다.

2017년 12월, 북미 정상간 '증오의 말폭탄'으로 한반도가 해전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당시, 민병두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초청하여 DMZ에서 최후순 강원도지사과 함께 '한반도평화를 기원하고 북한 선수단의 평화동계올림픽 참가를 촉구하는 평화평화선언식'이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 행사를 강원도와 공동주최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에서 '인권 및 세계 평화에 기여를 목표로 2018년 4월 세계 최초로 '인터넷평화상(Internet Peace Prize)'을 제정하였다.

심사위원단에는 198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Tilman Ruff (IPPNW의 공동대표),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Akira Kawasaki (ICAN 국제운명위원회 대표),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이사장),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 및 선플국회의원 서명 동판 전달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국회선플정치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두, 강석호, 이찬열, 유성열, 윤소하)와 공동으로 11월 7일(수) 오후 5시 40분, 국회의원과 제2소회의실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수상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을 갖고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

지 이동하며 '플래시몹'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비방대신 정책선거' 주문과 '생명존중 선플달기운동'의 취지를 알리는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생명존중 선플거리캠페인은 사람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근거없는 유인비어와 악플을 추방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에서 300여명의 선플운동 참여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이번 '생명존중 선플거리캠페인'에 선플 학생들을 인솔하고 참여한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 이상종(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은 "좌책감 없이 무심코 단 악플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고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충남도청 등 선플실천 협약



신한은행(행장 위성호)과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2월 6일(화), 신한은행 본사 15층 신한 심포니 오픈커뮤니케이션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응원과 배려의 선플문화확산을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플실천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임직원들의 선플활동 참여에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신한은행 디지털플랫폼 '신한솔(SOL)'을 이용한 고객대상 '선플운동 참여 이벤트' 개최, 선플활동을 하는 고객들에게 0.5%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선플적



금융장' 등을 출시했다.

지난 5월 23일(수),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11층에서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회장 김종량),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과 '선플운동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인터넷 인권 옹호운동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선플협약식을 계기로 매경미디어그룹과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선플운동본부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 문화운



동과 생명존중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5일(월) 충남도청에서 충남도청과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민병철 이사장이 충남도청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선플 특강을 진행했다.

● 선플SNS기자단 및 선플누리단 여름캠프 및 지역별 오리엔테이션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한양대 특훈교수)는 지난 7월 21일부터 1박 2일 간, 충북 제천 박달재수련원에서 청소년 선플누리단 학생들과 선플지도교사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존중, 헤이트스피치 추방을 위한 '2018 청소년 선플누리단 및 선플 지도교사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 후원으로 개최된 여름캠프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악플을 추방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와 비난을 퍼붓는 헤이트스피치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과 체험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2018 청소년 선플누리단 여름캠프'는 '나눔을 통해 생명존중과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사회공헌 활동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전국선플 사이버 기자단 지도교사 공원기 대신고 교사의 '청소년 선플활동과 진로 특강', 생명존중교육협력 김중구 강사의 '생명존중 특강'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8월 25일(토) 광주광역시 광광고등학교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플SNS기자단 정치언어모니터단 서부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9월 1일(토) 경북 의성 도리원아동센터에서 동부권 오리엔테이션을, 9월 8일(토) 서울 대신고등학교에서 중부권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특히 고등학생 및 대학생 297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학생대표들이 국회의원회의시스템 (iloms.assembly.go.kr/record)에 수록된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2018년 8월부터 2개월간 분석하여 6회 째를 맞이하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대상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 선관위, 경찰청 등과 함께 선플달기 릴레이 캠페인

선플달기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6월 8일(수) 현충일을 맞아 도봉산 등산로



입구(도봉산역)에서 서울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권오근), 대신고등학교(교장 김진업)와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관장 조경서), 양주 예방청소년활동센터(이사장 백성훈) 소속 선플누리단 학생들이 100여명이 현충일을 맞아 도봉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8/8(금)~6/9(토) 오전 6시~오후 6시'에 실시되는 '6.13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홍보하고 '공명선거 선플캠페인'을 펼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된 '공명선거 선플캠페인'은 전국의 청소년 선플누리단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우리 동네 후보'들에게 '공명선거 선플 선언문'에 서명을 받고, 네거티브 선거를 감시하는 활동을 했다. 공명선거 선플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6.13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공명선거 선플 홈페이지 (http://613.sunfull.or.kr)'에서 '공명선거 선언문'을 다운받아 서명 후 인증샷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여했다.

'공명선거 선플 홈페이지 (http://613.sunfull.or.kr)'에는 '박원순(더불어민주당)', '김문수(자유한국당)', '안철수(바른미래당)' 등 서울시장후보 전원과 '조현', '조영달',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속속 '공명선거 선플서명 캠페인'에 참여했다.

● 2018 선플활동 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 개최



한해 동안 선플활동을 되돌아보고 결산하는 '2018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이 12월 15일(토) 오후 2시, 명보아트홀 6층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상식에 이어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이 우수 활동 교사대표로 우수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영패배우 선우림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시상식에서는 교육부 장관상에 선플지도(초등)부문 대상에 모현초등학교 김철래 교사, 선플공모전 UCC부문 대상에 오



산고등학교 유준재, 소민수, 김연주, 장정수, 김해솔, 김연희, 윤관옥 학생이, 선플지원봉사(단체)부문 대상에 한양대학교가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만화·포스터 부문 대상 휘경여자고등학교 이지아, 선플논문부문 대상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 선플지원봉사 대상 설치미술가 배수영씨, 과학기술부 장관상으로 선플블로그 부문 대상 대부중학교 최우성 교사, 선플표어 부문 대상 대구대덕초등학교 박준우, 선플지도(중등) 부문 대상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이상종 교사, 선플지원봉사 부문 대상 판기 흠딩스 김규동씨가 수상했다.

법무부 장관상으로 선플재단 사이버공공의과단장 김경탁, 선플수필부문 대상 모현초등학교 백성정, 선플지도자 부문 대상 대신고등학교 공원기 교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에 선플사진 부문 대상 한광중학교 배미현 교사, 선플지도자 부문 대상 광주정광고등학교 고훈 교사, 선플지원봉사 부문 대상 방송인 박명수씨가 수상했다.

정리 = 조은태 기자

칼럼 포공영 / 시인



세월은 가
지도 오지도
않는데 사람
들은 세월이
가고 온다고
들 한다. 세월
이란 인간이
정지된 시공
을 인위적으
로 쪼개어 놓
고 시간이다. 달이다. 년이다 한다. 세월
은 인간이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개
념적 정의로 구축 지워놓고 1년이다. 100
년이다. 1세기다 21세기다 분별하여 말
한다.

시공을 구축 지워놓지 않으면 유기체
나 무기체나 얼마나 살았는지 어디쯤 가
고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모르고 우주 공간을 흐르는 구름처럼 떠
돌다 사라져 갈 것이다. 그렇게 만물만
생은 인연 따라 오고 갈뿐 세월은 오지
도 가지도 않는다.

무한한 시·공속에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상 인간은 생·
로·병·사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유기체는 生·住·興·滅의 법칙에
서 벗어 날 수 없고 심지어 우주에 수많
은 별들도 成·住·壞·空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
이나 모양 있는 것들은 모두 변하고 변
하여 끝내는 소멸하고 만다. 영원한 것
없다. 그대도 나도 우리는 모두 유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외선 타외선 인간으로 부모형제로
일기천적으로 부부로 친구로 동료로 이
웃으로 태어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상
살자니 먹어야 하고, 먹자니 일 해야 하
고 일 하자니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일하
며 살아야 하는 숙명을 타고난 생명체가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면 물고
플으며 사는 것 보다 선의의 경장을 통
하여 함께 웃으며 테레사 수녀처럼, 이
태석 신부처럼 불행한 이웃을 위하여 빌

아름다운 세상, 빛나는 삶을 위하여

게이츠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통 큰
기부로 서로 서로 도우며 양보하며 상생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혼자 많이 가지고 꼭 옮겨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겠는가? 죽을 때
가져 가는 것도 아닌데 살아 있을 때 많
이 베풀고 더불어 살다 가나면 뒷마리
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두 개를 가진 사
람은 하나를 나눠주며, 하나를 가진 사
람은 반을 나눠주고, 반을 가진 사람은
그 반의반을 나눠주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권력이나 육체적 힘을
상대적으로 더 가진 사람은 모두를 위하
여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건전하게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사람으로 함을 쓴다
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 그렇게 살고자
노력 한다면, 범죄도 없고 폭력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낙원이 따로 없는 아름다
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는 부자라서 좋
고, 가난한자는 가난해서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해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분
기점에 서면 제야에 종소리는 버릇처럼
크게 울리고, 나이는 한 살 더 먹고 일
구어 놓은 것은 없고, 일구고 싶은 것을
일구지 못하고, 가야할 길은 만데 해는
서 산에 걸려 있어 마음이 조금해져 남
은 생애 꼭 일구고 싶은 열망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름다운 인간이길 포기한 채 목을 매
는 모습을 신문 지상을 통하여 입에 오
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이 든다.

가는 해 서러워 말고 오는 해 반가워
하지 말고 그냥 세월이야 저 혼자 가거
나 말거나 묵묵히 각자에게 주어진 '달
란트' 대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세상 즐겁게 노락하며 흠주며 물처럼
흘러 갈 수 없을까? 풀잎에 맺힌 이슬처
럼 영롱하게 빛나는 삶을 영위할 수 없
을가 꿈꿔본다.

칼럼 오경숙 / 교수, 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소셜네트워
킹 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의 사용
은 청소년들
에게 새로운
기술의 습득
과 인맥 확장,
사회적 관계
망 생성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끌면서 빠
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SNS는 청소
년의 대인관계를 넓혀주고, 취·창업의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
과를 많이 주고 있다. 반면, 익명성이 보
장되는 SNS를 통하여 타인 비방, 욕설
등의 언어폭력과 대인 기피증, 저작권
침해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또한 관
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인터넷 약
성댓글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
고 우울증, 대인 기피증, 자살 등의 원인
이 되어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
고 있는 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
요한 과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도덕적으로 인
격완성을 위해 필수교과목 외에 여가를
활용한 여러 비교과 활동에 참여함으로
써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비교과 활동은 청소
년들에게 과업 및 일시적 스트레스 해소
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다양
한 도움을 줄 수 있고, 학교생활의 전반

적인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생활의 적응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부
정적인 생활사건이나 위협한 환경 등 스
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 안에서도 스트
레스의 영향을 덜 받거나 거의 받지 않
으며, 변화나 역경에 대처함으로써 역경,
충격으로부터 빨리 회복하는 힘)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청소년의 동아리는 봉사, 문화예
술, 어학, 교육 등의 여러 유형이 존재하
고 있다. 이 중에서 SNS 선플운동을 전
개하는 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리더십 생활기술 함양
및 학생 개인의 사회성과 자존감을
높여 주어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선플운동은 인터넷에서 악플을
추방하는 인터넷 평화 운동으로 주로 전
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시해왔던 활동이 현재 시대 청소년의 문
제와 학교생활적응에 알맞은 새로운 개
념의 봉사활동으로 부각되며 대학생은
물론 지역단체까지 활성화 되고 있는 운
동이다.

2018년 10월 국제대학교 선플동아리
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선플달기 및 선
플캠페인 경험이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1주일에 3일 이상' 선플을 달
거나 선플을 달기위해서 노력 하는 학생
들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플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감정
조절을 잘하였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서도 긍정적인 방향 전개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플달
기를 많이 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적
응과 대학에적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청소년들의
SNS를 이용한 선플달기 경험은 청소년
의 자아탄력성은 물론 학교생활 적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을 하는데 긍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
기 위해서는 입학 초기부터 올바른 SNS
댓글 사용 및 선플 언어 교육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해의 마무리, 사랑하는 사람에
게 격려의 말을 해보자

나는 학생들과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인터넷에 선플언어, 격려의 댓글을 달자
는 취지의 운동을 하고 있다. 돌아해보
니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
안 학생들과 인터넷에 격려의 댓글도 달
아보았고, 많이 수줍어하는 학생들과 같
이 또는 70대 어르신들과 협동하여 거리
캠페인도 해보았다. 국회에 들어가 바른
언어를 많이 사용하였던 국회의원들에게
시상을 하고도 했고, 학교폭력을 예방하
자며 우리 대학생과 교수님, 지역 노인
들이 만나 고등학생들에게 연극공연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작은 일들을

실현해가며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성
숙해 왔을 것이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성장한다. 즉
말을 먹고 자란다는 것이다. 만 1살의 아
기들도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부모와의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 이때 부모와 언
어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서 자신이 환경받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성인이
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결실 또한 크게
달라진다.

2000년에 친부모에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이은식을 기억할 것이다. 이은식
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었고, 본인도
고려대학교 진학한 남부러울 것 없는 모
범생이었다. 그러한 이은식은 성장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왜 더 잘하지 못하냐,
너 같은 지식을 필요 없어. 나가 죽어"라
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반면,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는 "꿈은 아이
의 꿈이다. 엄마는 안내자다. 꿈으로 가
는 길목의 안내자, 아이가 외롭지 않게
불을 밝혀주는 사람. 엄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엄마의 말에 피겨여왕이리
는 큰 꿈을 꿀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 볼
것을 제안한다. 꿈이 근사하게 말하려고
애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랑해",
"네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보고 싶
었어" 등의 작은 표현만으로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많이 행복해 할 것이기 때
문이다.

칼럼 정문호 / 동국산업 전 부회장



인간은 혼
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의 신체
적 능력은 어
느 하나 다른
동물들 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인간이
자랑하는 지
능조차도 혼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인
간이 홀몸으로 자연 상태에 내면적전다
면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는 쉽
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생존에 성공하
고 위대한 문명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결집력 등
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찍이 아리스
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Social
Animal'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성 없이 자기 가족만 알고
이웃사람과 소통, 협력이 없었던 네안데
르탈인은 인간보다 더 큰 신체와 더 큰
두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생 인류
호모사피언스에 의해 멸종되었다고 한
다. 따라서 호모사피언스가 협동하고 서
로 도와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지구의
담당한 주인이 되었다는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학자
유발 하리리는 호모사피언스가 집단적으

로 협력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기 때
문에 경쟁자를 멸종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왜 이웃을 돕는가? 여기에
철학적인 답이 있다. 남을 도우면 결국
나에게도 도움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 자
신을 생각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다. 영
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 존재로 여겼다. 그래
서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
한 투쟁 상태'라고 하였다. 하루는 홉스
가 길을 가다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냥을
주었다. 그러자 자인이 묻는다. 홉스 자
네는 평소 인간을 이기적이라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조금 전 한 행동은 인
간은 이기적이라는 자네 철학에 스스로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때
홉스의 답변이 결정적이다. 거지를 위해 도
운 것이 아니네.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거지의 모습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으니
나를 위한 것일세! 결국 남을 돕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한다는 것이다.

"중용"에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도와주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을 '군
자君子'라고 한다. 유교사상에서 '군자'
는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자 모두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그러면 서양의 시작은 어떻게?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애덤 그랜트의
저서 '기버 앤드 테이크 Give and Take'

왜 이웃을 돕는가

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
을 좋아하는 사람인 '기버Give'가 자신
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더 받기를 원하는
'테이크Take'보다 조직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오며 관계가 지속될수록 '기버' 개인
에게도 많은 보상이 따라 온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즉, 동양철학 속
'군자'와 서양의 실증사례 속 '기버
Give'가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베푸는 사람이 되면 도덕적으로 이상
적일 뿐 아니라 실용적 차원에서도 성공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
서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배려와 베품
이 사치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베풀고 주는 것'은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더
욱 절실한 덕목이기도 하다.

독일 출신 저널리스트인 슈테판 클라
인도 자신의 저서 '이타주의자가 지배한
다'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타주의
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잘 살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타인의 행위를 위해 노
력하는 이타주의가 훨씬 앞선다. 21세기
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에서는 타인
의 성공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의
불행이 나에게도 재앙이 된다. 결국 미
래사회는 이타주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
다"고 말했다. 인간은 가정과 사회를 통

해 이타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학
자들의 주장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이익에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는 말이다.

먼 옛날부터 인류는 식량이 부족한 세
상에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원시인들의 공동 사냥은 집단 구성원의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새로운 경제 기반
을 마련했다. 오늘날의 인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제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더 많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해 낸다.

하지만 지식은 아무리 나눠주어도 줄
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성과로 돌아온다. 그리고 성과를
아무리 혼자 간직하려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지식의 속성은 나눔 문화를 장려한
다. 미래경제에서 나눔 정신과 이타심의
재능이 주목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 같으면서도
인간애에 대한 믿음의 숨겨진 힘에 의해
서 인류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공감과 소통의 능력 때문이다. 몇 사람
이 웃으면 따라 웃게 되는 까닭은 감정
이일 때문이며 감정이입은 타인을 이해
하는 통로로서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 인간은 공감을 참하면 더 잘 배
우고 더 잘 협력하게 된다. 미래는 이타
주의자의 것이다.

사 설

선플로 악플을 이겨내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있다. 16세기 영국 금융
업자이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교문이었던 토마스 그레샴의 이름을 딴
법칙이다. 명목상으로는 똑같은 1실링 가치가 있는 주화와 하더라도, 순
은으로 만든 1실링짜리(양화)와 은에 구리를 섞어 만든 1실링짜리(악화)
가 있으면 시중에는 양화가 자취를 감추고 악화가 유통된다는 현상에서
착안한 법칙이다.

그레샴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경제 분야에 적용되지만 사실은 경제 분
야만이 아니라 일상 삶의 다양한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적으로,
나쁜 소문이 훨씬 빨리 퍼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쁜 소문만이 아니
다. 험담, 비방, 중상, 모략같은 옳지 못한 말이나 작태들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큰 위세를 부리고 있음을 우리는 골찰 경험한다. 좋은 이야기에
대한 감동도 크지만 나쁜 이야기가 미치는 파장이나 충격은 훨씬 클 뿐
아니라 그 폐해도 심각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인터넷이나 SNS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
는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악플)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으로 전파되는 가짜 뉴스와 악플의 위력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
를 훨씬 뛰어넘는다. 특정한 사건이 터지면 선플보다는 악플이 훨씬 더
급속도로 전파된다. 여기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는 마치 물매에 맞듯이 악
플로 도배될 당한곤 한다.

하지만 작용에는 이에 대항하는 반작용이 있듯이 최근 펼쳐지고 있는
선플운동이 있다. 선플운동은 인터넷에 나쁜 글보다 칭찬하는 글을 달자
는 댓글 즉 리플을 선하게 달자는 운동이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
여주는 일이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남을 칭찬한 해주면 이 세상은 시비 거리가 없어진다. 사
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선플달기운동에 참여 한다면 더 큰 즐거움을 만
들어낼 수도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남겼다
면 감사하고 힘이 솟고 기쁨 수백에 없다. 모두가 스스로 컴퓨터를 뒤져
서 어디든 격려하고 용기주고 힘주는 선플을 하루 3개씩이라도 단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악플을 몰아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또한 밝고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다. 우리 스스로부터 칭찬과 격려
로써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비난하고 단점을 들추어내기(악플)보다 착함
을 들어 칭찬하고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선플)에 앞장선다면 선플로 악
플을 이겨내고 사이버 세상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도 악플은 근절돼야

악플이란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의 준말이다.
즉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
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
플러'라고 한다. 악플은 근거 없는 언어폭력으로 근거를 갖춘 부정적 평
가와는 구별해야 한다.

근거 없는 비방과 인신 공격성 악플은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인격을 침해하고 자살을 초래하기
도 한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
적인 언어폭력이나 인신공격 등을 행함으로써 악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
다. 더욱이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범죄, 회한한 사건, 성적 추문 등
을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취재 보도하는 오픈 저널리즘의 선정적 보도가
대중의 집단적 광기를 유발하고 마녀사냥으로 흐르기 쉽다. 오픈 저널리
즘은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또다시 엄청난 악플로 이어져 해당 피해자를
절망케 한다.

또한 악플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추락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터넷강국이 되고 진정한 표
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플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문자
폭탄' 등 디지털 테러는 근절돼야 한다.

악플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먼저 네티즌의 자성과 자율규제가 필요하
다. 대대적인 선플달기 운동도 한 방법이다. 실제 지난 11년여간 선플 운
동은 틀림없이 번졌다.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의 자원봉사자가 70만 명
에 이르고 여러 사이버공간에서 선한 글을 올려 인증을 받은 선플만 800
만개에 달한다. 국내외 7000여개의 학교와 단체가 선플 운동과 함께하고
있고 국회의원 299명중 297명은 선플 정치 선언문에 서명했다.

다음으로 포털과 SNS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악플 필터링 기능
을 강화하여 악플의 급속한 확산을 막는 기술적 장치가 강화되어야겠다.

악플 추방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 선플캠페인 정기 기부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40-011-456034 (선플재단)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2014년 11월 28일 창간	
발행인 · 민병철		편집인 · 여영미	
		인쇄 · 이병동	
발행처 (사)선플운동본부		본사 062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역삼동) 유통별당 15층	
표 전 화 02)535-3449		팩 스 02)6008-3377	
집 국 02)535-3156		E-mail sunfull@bcm.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보생명 60년의 믿음 교육이 미래다

아이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인생을 살아갈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육이다’
변치않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교육보험을 다시 선보입니다.

교육자금을 보증하는 신개념 변액교육보험
미리 보는 (무)교보변액교육보험

[자녀를 위한 자금 마련]

대학학자금, 아학연수 비용, 주거비용 등 목적에 맞게 필요한 자금 마련 가능

[튼튼한 최저교육자금 보증]

운용성과에 관계 없이 최저교육자금을 보증하고, 운용성과가 좋을수록 더 많은 교육자금 지급

[성장기에 다양한 질병 보장]

특약으로 치아, ADHD, 암 등 다양한 질병보장에 수술 및 입원까지(해당특약 가입시)


KYOBO
교보생명

*최저교육자금 보증을 위해 별도의 보증비용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금, 교육자금 보증, 미래준비자금 보증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통금이나 사고보통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계약자적립금, 해지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되고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1808-20 상품지원팀(2018.08.23)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3198호(2018.8.24)